

12/17/17

설교 제목: 성도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의 역사

전하는 이: 김순배 강도사

말씀: 로마서 8 장 1-17

- (롬 8:1)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 (롬 8:2)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절관주** 마 11:29, 갈 2:19, 롬 5:21
- (롬 8:3)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에 죄를 정하사
- (롬 8:4)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 (롬 8:5)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 (롬 8:6)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 (롬 8:7)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 (롬 8:8)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 (롬 8:9)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 (롬 8:10)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 있는 것이니라
- (롬 8:11)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절관주** 롬 6:4, 고전 6:14
- (롬 8:12)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빛진 자로되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절관주** 벰전 4:2
- (롬 8:13)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써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 (롬 8:14)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 (롬 8:15)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절관주** 딤후 1:7

(롬 8:16)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롬 8:17)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사도 바울은 로마서 8 장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역사하는 하나님의 영인 '성령'에 관해 설명합니다.

8 장 전반부인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 내주하여 행하는 일에 관해 말합니다.

1.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 율법으로부터의 자유를 주십니다.

(롬 8:1)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롬 8:2)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죄와 사망의 법'과 '성령의 법' 두 법이 나옵니다.

'죄와 사망의 법'은 인간이 도저히 지킬 수 없는 율법, '성령의 법'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법, 복음을 가리킵니다.

인간은 누구나 죄성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리고 이 타고 난 죄성 때문에 죄를 지으며 죄인으로 삽니다.

죄를 주인으로 삼아 죄에게 종 노릇하면서 부끄러운 열매를 맺고 평생 살다가 백보좌 심판에서 율법으로 심판을 받아 지옥에 떨어져 멸망받을 수 밖에 없는 운명을 타고 난 것입니다.

그러니 인간은 내버려두면 자동적으로 모두 지옥에 떨어져 멸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당신이 만드신 인간이 모두 멸망받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에 가슴 아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비록 당신에게 불순종한 죄를 범했지만 그래도 당신이 만들었기에 차마 버릴 수 없는 인간들을 살려내시겠다고 작정하시고 해결책을 내 놓으셨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복음입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이 생명의 성령의 법 즉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 성령을 보내 역사하게 하셔서 그들을 지배하고 있는 죄와 사망의 법인 율법으로부터 해방시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무엇인지를 설명합니다.

(롬 8:3)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에 죄를 정하사

(롬 8:4)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란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이 세상에 보내셔서 죽게 하심으로 인간의 죄값을 대신 치르게 하고 인간에게는 칭의를 입혀 멸망에서 구원받도록 해 주신 것을 말합니다.

'육신의 죄를 정하사'는 육신의 죄를 깨끗이 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자기 자신의 죄값을 갚아 스스로 의롭게 될 수 없는 인간을 대신해 당신의 독생자를 속죄제 제물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2.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을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케 하십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3 일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을 때 우리의 옛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받혀 죽었고 또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2000 년 전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다고 해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우리의 죽음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 되는지 의아하지 않습니까?

이것을 가능하게 하신 이가 성령님이십니다.

성령은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루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하십니다.

성도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2000 년전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된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죄 사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아 결코 율법으로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우리는 죄에 대해 죽고 새 생명을 얻어 천국을 약속 받았으며 이땅에서도 천국 백성으로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죄의 지배로부터의 자유, 마귀로부터의 자유, 지옥으로부터의 자유를 누리며 살게 된 것입니다.

3.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의 새 주인이 되십니다.

(롬 8:9)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시인한 사람은 이미 성령을 받은 것입니다.

(고전 12:3)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은 예수를 주라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주라고 인정하는 것이 바로 성령받은 증거라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는 것과 성령 충만함을 받는 것은 다릅니다.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 모두에게 찾아 오셔서 내주하고 계십니다.

성령이 내주한다는 것은 성령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셔서 옛 주인을 몰아내고 새 주인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옛 주인은 마귀의 종, 죄의 종된 '자아'입니다.

새 주인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마귀와 자아가 주인이었을 때는 우리의 마음이 온통 죄된 생각으로 가득찼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순간 새 주인이신 성령 하나님이 들어 오셔서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육신을 새롭게 하십니다.

먼저 생각을 새롭게 하십니다.

(롬 8:5)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롬 8:6)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롬 8:7)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롬 8:8)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성령이 우리의 새 주인이 되면 우리의 생각이 바뀝니다.

옛 주인이 지배하고 있을 때는 육신의 일만 생각했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마귀가 주인이 되어 지배하고 있으므로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여 죽음으로 몰아가고 하나님과 원수되게 합니다.

그러나 성령이 새 주인이 되면 영의 생각을 하게 합니다.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으로 하나님의 법을 순종하게 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일단 성령이 우리의 새 주인으로 들어오면 그때부터 절대로 성도를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으시고 내주하고 계시면서 우리를 끝까지 도와 성화시켜 나가십니다.

생각 뿐만 아니라 육신도 새롭게 하십니다.

(롬 8:11)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몸은 죽어 썩어 없어집니다.

그런데 성령은 이 죽어 썩을 몸을 변화시켜 썩지 않을 몸으로 변화시킬 것입니다.

마지막 날, 그날이 오면 성령은 우리의 죽어 썩어 없어질 몸을 영원히 살 몸으로 변화시켜 우리로 하여금 천국에 들어가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 수 있게 하실 것입니다.

4.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성령을 따라 살 의무가 있습니다.

(롬 8:12)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빛진 자로되 육신에게 저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롬 8:13)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써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우리는 하나님께 빛진 자들입니다.

빛진 자는 빛을 갹아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성도가 된 우리가 성도로서 하나님 앞에서 해야 할 일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것은 바로 육신에게 다시 저서 육신대로 살지 말아야 할 의무입니다.

성도가 되어 새 사람이 되었지만 아직 죄된 옛 성품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우리를 향해 사도 바울은 옛 성품을 죽이라고 말합니다.

영국의 훌륭한 군목이었던 올리버 크롬웰 목사님은 “당신이 죄를 죽이는가? 아니면 죄가 당신을 죽이는가? 당신이 죄를 죽이지 않으면 죄가 당신을 죽일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옛 성품인 죄성이 잔재해 있습니다.

이 죄성을 내버려두면 죄가 우리를 죽일 것입니다.

우리가 옛 성품인 죄성을 죽이고자 할 때 성령님이 도와 주십니다.

마음 속에 잔재해 있는 옛 성품을 죽이고 새 성품으로 살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5.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됨을 증언합니다.

(롬 8:14)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롬 8:15)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롬 8:16)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성령은 우리 마음 속에서 역사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라는 증거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마음을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친자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양자들입니다.

(롬 8:17)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법적인 상속자가 된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법적 상속자가 되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기업 곧 천국을
상속받게 되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그러나 영광을 얻기 위해서는 고난이 따르는 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에게도 이 땅에서 수많은 고난들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본받아 그 고난들을 회피하지 말고 끝까지 참고 인내하여 이겨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고난을 이겨낸 후 큰 영광을 받은 것과 같이 우리도 고난을 이겨내면 장차 큰
영광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장차 받게 될 그 영광은 지금의 그 어떤 고난과 비교될 수 없는 큰 영광입니다.

하나님이 꿈꾸는 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의 삶의 무게가 아무리 무거울지라도 고난이 아무리 클지라도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의 무게와 십자가의 고난만 하겠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쉬우셨을 것이라고요?

천만예요.

예수님은 100% 인간으로 이땅에 오셨고 우리와 똑같이 고통과 슬픔과 아픔을 느끼신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살려내기 위한 하나님의 프로젝트에 기꺼이 참여하셔서 죽기까지
순종해 마침내 이루어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예수님께 만왕의 왕이 되는 큰 영광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No Cross No Crown!

참고 인내하여 이겨내는 것이 없으면 영광도 없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삶이지만 그럴때마다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끝까지
참고 인내하여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이 도와 주셔서 마지막 날에 반드시 큰 영광을 거머쥐게 될 것입니다.